

### 두 차례 총장 지냈던 전북대 찾은 서거석 교육감

#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하길”

## 명사·전문가 특강서

“겸손과 성실, 배려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타인에게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전북대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이 학교 학생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인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전북대 요청으로 이뤄졌다.

명사 초청 특별강연에서 서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전북대 총장 시절의 교육철학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이루기 위한 제언 등 대학생들이 제시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 교육감은 “목표 의식을 갖고 전공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비록 지금은 많이 막막해 보일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전북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13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명사·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지라도 여러분의 노력과 끈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설렌

다”며 “이 자리에 모인 청춘들의 꿈이 아름답게 빛나길 바라며, 전북교육청도 함께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장은성 기자

## 첨단분야 학생 정원 조정 선정

전북대, 방위산업·이차전지·항공우주 등 정원 증원키로  
첨단방위산업 20명·이차전지공학 30명 규모 학과 신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첨단분야 학생정원 조정에 선정, 해당 학과를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정부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책에 의해 2026학년도부터 △첨단방위산업학과 20명 △이차전지공학과 30명 △항공우주공학과 12명 순증(기존 36명→48명) 등 총 62명의 정원을 신규 확보하거나 증원한다.

첨단 방위산업과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전담 학과를 신설함에 따라 글로벌 대학30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전북대는 2023년 1기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이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주·완주, 익산·정읍 지역을 연결하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JUC Triangle)’을 조성하고 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와 K-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신학원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첨단산업 분야 정원 증원은 단순한 숫자 확대를 넘어 전북의 산업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북대학교 본부 전경

특히 국가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와 방위산업, 항공우주 산업은 고급 기술력과 현장 적용 능력을 겸비한 인재 확보가 관건인 만큼, 정원 확대는 곧바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단순한 교육 혁신을 넘어, 지역 전략산업의 중심대학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며 “정원 증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앞으로도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교육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혁신 선도 거점 대학 위상 재입증

전주대, '전북 RISE' 도내 사립대 중 사업비 최대 규모 확보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년 전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하 RISE사업)을 통해 5년간 약 6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도내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수주한 사례로, 전북 지역 인재 육성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공동체, Rising 전주대학교’라는 비전으로 지자체·혁신기관·연구소·산업체·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교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비교우위 지역성장 견인연구 △ 지역기반 창업·일자리 지원 △평생교육 지역허브 대학 △아낌없는 지역사회 협력 등 5대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

다. 특히 Track I-1(생명·전환산업 특성과 인재양성), Track I-3(BI-RISE 연구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농생명, △생명서비스·웰니스, △첨단소재 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문화관광 글로벌화, △디지털ICT 분야 등 전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다분야 융합 인재 양성과 연구 중심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RISE사업의 대규모 선정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지역민과 협력 기관들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29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설립 72주년 및 전주비전대학교 개교 49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 전주비전대, 개교 49주년·RISE 사업 선정 기념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9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설립 72주년 및 전주비전대학교 개교 49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예배, 2부 기념식, 3부 RISE사업 선정 기념식으로 구성, 대학 구성원과 외부인 함께 대학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1부 기념예배는 김영선 목사의 인도로 경건하게 진행됐으며, 차준순 이사장이 축도를 맡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과 전주비전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어 열린 2부 기념식에서는 우병훈 총장이

기념사를 통해 개교 49주년을 축하하고, 최근 선정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을 언급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병훈 총장은 “RISE사업 선정은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이 이어져, 30년, 20년, 10년 동안 대학 발전에 기여해 온 교직원들의 헌신을 기렸다. 3부로 이어진 RISE사업 선정 기념식에서는 비전한국어센터 소속 외국인 유학생 댄스팀이 열정적인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장은성 기자

##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야” | 국회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토론회

거점국립대 총장, 전·현직 교육감들 대선공약 반영 촉구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핵심 교육개혁 과제로 주목받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2담화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경쟁 입시 체제 완화를 통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들의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형배 의원, 박민규 의원이 축사를 했고,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축전을 보내왔다.

경희대 김종영 교수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지족 해체, 지방 소멸 방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

이라며 “서울대병일 10개와 연계한 한 국형 실리관벨리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의료 격차 해소와 부동산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통해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성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5대(초)광역경제권과 연계한 ‘(초)광역생활자립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교육, 의료,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거점 국립대학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거점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인프라 및 전일제 대학원생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1도 1국립대 체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한국대 10개 만들기’라는 명칭을 제안하며 “대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2담화실에서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쟁이 학벌 중심이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투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 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

란다”고 전했다. 차정인 전 총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현직 대학 총장과 교육감들이 함께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대학 정책을 넘어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조직문화 진단 본격 추진

내달 9일까지 설문조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면적인 조직 진단에 나섰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까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통과 협업, 업무 효율성, 조직 만족도 등에 대한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문제점

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부서 간 소통의 어려움, 비효율적인 관행, 인사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등을 집중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직급과 직종이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추진협의체(TF)도 구성, 진단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관리자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2층 강당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관리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청 부서장, 장학관, 사무관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관리자의 객관적·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빅데이터 전문가인 서진수 컨시어지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스테이

터 리터러시의 이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문화 정착의 필요성 △관리자로서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관점 △데이터 기반 정책의 실제 적용 사례 및 국내외 우수사례를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교육데이터 분석·시각화 사례와 함께 소개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 초등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확대

전북교육청, 설명회 개최

학교만의 색깔 담은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이 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2층 강당에서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설 설명회를 가졌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과목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학교별로 3~4학년은 올해부터 29시간 이상, 5~6학년은 내년부터 32시간 이상 한 학기에 편성, 운영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과목 개설 희망학교 교원 및 관심 교사 21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확대를 목표로, 과목 개설 절차 및 행정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해 과목을 개설한 전주효 천초등학교와 봉서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사례를 들려주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3~4학년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을 18개 개설한 바 있다. 이는 초등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한 8개 시·도 교육청 가장 많은 과목 개설로, 전북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열정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는 학교자율시간을 운영 예정인 3~4학년을 포함해 내년 운영 예정인 5~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감 승인 과목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는 ‘초등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학교 신청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연구학교는 전주효천초, 봉동초, 회현초, 무주초 등 4개교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확대로 진정한 학생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도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설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